

<2021년도>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④	②	①	④	④
6	7	8	9	10
④	③	④	⑤	④
11	12	13	14	15
②	②	③	③	③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⑤	②
21	22	23	24	25
⑤	④	④	②	②
26	27	28	29	30
①	①	③	③	②
31	32	33	34	35
⑤	③	⑤	①	③
36	37	38	39	40
④	④	⑤	②	①
41	42	43	44	45
⑤	①	①	③	⑤
46	47	48	49	50
⑤	③	⑤	③	⑤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 ②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하였다.
- ③ 거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 ④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④

'공주 석장리 유적' 검색 결과 '주먹도끼, 찌개 등 (가)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 한반도 남부에서 최초로 출토된 곳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또한 집자리 유적도 발굴되어 (가) 시대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가)'는 구석기(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②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곡식을 수확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 ③ 거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만든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02 - 초기 국가, 옥저

2. (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한 때까지 기른다. 여자가 장성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

(나) 읍마다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예(濊), 왜(倭)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

- ① (가) -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 ② (가) - 삼로라 불린 우두머리가 읍락을 다스렸다.
- ③ (나) -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④ (나)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다.
- ⑤ (가), (나) -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정답> ②

(가)에 '여자의 나이가 열 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한 때까지 기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자가 장성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 집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초기 국가,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나)에는 '읍마다 우두머리가 있어 세력이 강대하면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나라에는 철이 생산되는데 예(濊), 왜(倭) 등이 와서 사간다. 무역에서 철을 화폐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초기 국가, 삼한, 그중에서도 변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초기 국가, 옥저와 동예에서는 읍군(邑君), 삼로(三老)라 불린 우두머리[군장]가 읍락을 다스렸다.

오답 해설>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한 나라는 (옥저가 아니라) 삼한이다.
- ③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삼한이 아니라)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④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한 나라는 (삼한이 아니라) 초기 국가, 동예이다.
- ⑤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의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이다 (기원전 108).

03 - 고구려의 문화유산

3.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 -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 ② (나) -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 ③ (다) - 매지권(買地券)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 ④ (라) -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다.
- ⑤ (마) - 돌무지덧널무덤으로 축조되었다.

정답> ①

'답사 계획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경로로, '환도산성 → 국내성 → 오회분 5호묘 → 광개토 대왕릉비 → 장군총'이 나와 있다.

관구검(?~255)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은 동천왕 18년인 244년의 일이다. 이때 고구려의 환도(산)성이 함락되었다.

오답 해설>

- ②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은 압록강 중류의 졸본이다(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 유리왕 22년인 서기 3년에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 ③ 매지권(買地權)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된 것은 백제 무령왕릉이다.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 ④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은 창녕비이다. 진흥왕 29년인 568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정식 명칭은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이다. 진흥왕 순수비 4개 중의 하나이다(나머지는 북한산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 ⑤ 장군총은 돌무지무덤이다. 돌무지덧널무덤은 통일 이전 신라의 무덤 양식이다.

04 - 22담로(백제 무령왕)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 겨울 10월, 웅진으로 도움을 옮겼다.
-『삼국사기』-

(나)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 북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삼국사기』-

- ①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다.
- ②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 ③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가 수용되었다.
- ④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되었다.
- ⑤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정답> ④

(가)에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위에 올랐다. …… 겨울 10월, 웅진으로 도움을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의 백제 한성 공격으로 개로왕(재위 455-475, 제21대)이 전사하고 문주왕(재위 475-477, 제22대)이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으로 천도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475, 문주왕 원년).

(나)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 북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백제 성왕(재위 523-554, 제26대)이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554, 성왕 32).

지방을 통제하기 위하여 22담로에 왕족이 파견된 것은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된 것은 무왕 대(재위 600-641, 제30대)의 일이다(639, 무왕 40).
- ② (달솔) 흑치상지(630?~689)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킨 것은 660년 7월 백제 멸망 직후부터이다. 흑치상지는 도읍인 사비성 함락 직후 임존성(오늘날 충남 예산 대흥)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고, 당군을 격퇴하면서 2백여 성을 회복하였다.
- ③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백제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침류왕(재위 384-385, 제15대) 원년인 384년의 일이다.
- ⑤ 계백(?~660)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운 것은 660년 7월의 일이다.

05 - 골품제

5.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원화(源花)에 기원을 두고 있다.
- ② 을파소의 건의로 처음 마련되었다.
- ③ 서얼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 ④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 ⑤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대아찬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는 말이 나와 있다(대아찬은 제5등 관계).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고맙네. 하지만 6두품인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아찬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 그려'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제도'는 신라의 독특한 폐쇄적 신분제인 골품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골품제는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법흥왕 때 정비).

오답 해설>

- ① 원화(源花)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는 신라의 화랑도이다(576, 진흥왕 37). 삼국사기에 처음에 남모와 준정이라는 여자들을 뽑았으나 둘 사이의 갈등으로 원화 제도가 폐지된 기록이 있다. 화랑도를 국선도(國仙徒)·풍월도(風月徒)·원화도(源花徒)·풍류도(風流徒)라고도 불렀다.
- ② 을파소(?~203)의 건의로 처음 마련된 제도는 고구려의 진대법이다(197, 고국천왕 16).
- ③ 서얼의 관직 진출을 법으로 제한한 제도는 서얼 금고법이다. 경국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1485, 성종 16). 이후 철종 2년인 1851년에 신해허통이 이루어져 서얼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는 철폐되었다.
- ⑤ 문무 5품 이상 관리(와 공신)의 자손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고려의 음서 제도이다.

06 - 검모잠(고구려 부흥 운동)

6.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검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맞아 들여 임금으로 삼았다. 다식(多式) 등을 신라로 보내어 고하기를,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신라 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

612	618	645	660	676	698
(가)	(나)	(다)	(라)	(마)	
설수 대첩	당 건국	안시성 전투	사비성 함락	기벌포 전투	발해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검모잠이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신라로 향하였다. 안승을 맞아 들여 임금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다식(多式) 등을 신라로 보내어 고하기를, 지금 신 등이 나라의 귀족 안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원컨대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영원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합시다'라고 하였다. 신라 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이던 검모잠(?~670)이 안승을 임금으로 삼고, 당의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신라와 협조하는 내용으로, 670년의 일이다(당의 정벌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안승에게 피살). 연표에서는 660년과 676년 사이인 (라) 시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금마저는 지금의 전북 익산으로 4년 뒤인 674년에 (고구려 유민을 위한) 보덕국이 설치되었다.

07 - 발해(신라도)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왜에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 ② 2군 6위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 ③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 ④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⑤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체도를 갖추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오늘 소개해 주실 문화유산은 무엇입니까?'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것은 (가)의 5경 중 하나인 동경 용원부 유적에서 발견된 불상입니다. 보탑(寶塔) 안의 다보불이 설법하던 석가불을 불러 함께 나란히 앉았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형상화하였습니다'는 답변이 나와 있다. 발해의 이 불명좌상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발해는 신라도를 통하여 신라와 교류하였다. 발해에는 5개의 주요 대외 교통로가 있었는데, 당과는 조공도·영주도가, 거란과는 거란도가, 일본과는 일본도가, 신라와는 신라도가 있었다.

오답 해설>

- ① 왜에 칠지도를 만들어 보낸 국가는 백제이다. 백제의 제14대 왕인 근구수왕(재위 375-384)이 왕자로 있을 때 일본 사신을 통해 왜왕에게 보냈다[372(근초고왕 27), 『일본서기』].
- ② (중앙군으로) 2군 6위의 군사 조직을 운영한 국가는 고려이다.
- ④ 광평성 등의 정치 기구를 마련한 국가는 후고구려이다(904).
- ⑤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체도를 갖춘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685, 신문왕 5).

08 - 혜초(왕오천축국전)

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다큐멘터리 공모 신청서

공모 분야	역사 - 인물 탐사 다큐멘터리
작품명	(가)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되다
기획 의도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가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가)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재조명한다.
차별화 전략	기존에 간과해 왔던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현지 답사를 통해 고증하고자 한다.
주요 촬영국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화랑도의 규범인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④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정답> ④

'다큐멘터리 공모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공모 분야로 '인물 탐사 다큐멘터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작품명으로 '(가)의 저서, 위대한 역사 기록이 되다'이, 기획 의도로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승려가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가)의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재조명한다'가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간과해 왔던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 제국에 대한 기록까지도 현지 답사를 통해 고증하고자 한다'는 차별화 전략과 주요 촬영국으로 '중국,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임을 알 수 있다(727, 성덕왕 26).

오답 해설>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이 편찬된 것은 진성 여왕 2년인 888년의 일이다. 각간(角干) 위홍(魏弘)과 대구화상(大矩和尚)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 ②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인물은 원광(555~638)이다(601, 진평왕 23).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힘쓴 인물은 화쟁국사 원효(617~686)이다.
-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인물은 원묘국사 의상(625~702)임을 알 수 있다(668, 문무왕 8).

09 - (통일) 신라 말기의 사실

9.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
- ②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③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 ④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 ⑤ 체징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이곳은 명주군왕(溟州郡王) 김주원의 묘야. 그의 아들 김헌창은 아버지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김주원과 김헌창의 삶을 통해 혜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된 이 시기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시기'는 (통일) 신라 말기를 가리킬 수 있다.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것은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의 일이다(헌덕왕(재위 809-826, 제41대).

보조선사 체징(804~880)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것은 신라 문성왕 2년인 840년의 일이다(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 도의 선사(도의 국사)(?~825)를 종조(제1조)로 삼았다.

오답 해설>

-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킨 것은 (통일) 신라 신문왕 원년인 681년의 일이다.
- ② 거칠부(502~579)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한 것은 진흥왕 6년인 545년의 일이다.
- ③ 김춘추(604~661)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오른 것은 661년의 일이다(태조 무열왕(재위 654-661), 제29대).
- ④ 자장(590~658)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643년에 건의).

10 - 고려 태조(정계와 계백료서)

10.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창작 뮤지컬
'삼태사,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고창 전투에서 (가) 을/를 도와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太師)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장길(장정필)·
권행,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2021년 〇〇월 〇〇일 20:00
• 장소: 안동 민속촌 특설 무대

- ① 신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 ②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 ③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 ⑤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정답> ④

'창작 뮤지컬, 삼태사,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는 제목 아래 '고창 전투에서 (가)을/를 도와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太師)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장길(장정필)·권행,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고려 태조인 왕건(재위 918~94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고창(지금의 경북 안동) 전투가 벌어진 것은 930년].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것은 936년(태조 19)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신라에 침입하여 경애왕을 죽게 한 인물은 견훤(867~936)이다(927).
- ②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한 것은 고려 예종 4년인 1109년의 일이다.
- ③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한 인물은 궁예(?~918)이다(904).
- ⑤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한 인물은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951, 광종 2).

11 - 고려 초기의 주요 사실들

11.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시켜 왕을 해하려 하였다.

(나)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典籍)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로 삼아, 12목에 각각 1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라고 하였다.

(다)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詩)·부(賦)·송(頌)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다. 위봉루에 친히 나가 급제자를 발표하여, 갑과에 최섬 등 2명, 명경에 3명, 복업에 2명을 합격시켰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②

(가)에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시켜 왕을 해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규의 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려 혜종 2년인 945년에 일어난 일이다.

(나)에는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典籍)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로 삼아, 12목에 각각 1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12목에 1명씩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6년인 987년의 일이다.

(다)에는 '왕이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詩)·부(賦)·송(頌)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다. 위봉루에 친히 나가 급제자를 발표하여, 갑과에 최섬 등 2명, 명경에 3명, 복업에 2명을 합격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에서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다)-(나)'가 된다.

12 - 고려의 경제 상황

12.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입니다. 당시 (가)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에게 보내는 물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김준은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 ①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하였다.
- ② 해동통보, 활구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 작물로 재배되었다.
- ④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되었다.
- ⑤ 계해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가)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에게 보내는 물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김준은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죽찰 내용으로는 '김 영공(김준)의 덕에 홍합젓갈 등을 올림'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고려임을 알 수 있다(무신 정권기).

*죽찰(竹札):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글자를 기록하던 대나무 조각. 또는 대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책

고려 숙종 대에 해동통보, 활구 등의 화폐가 발행되었다[각 1102(숙종 7)/1101(숙종 6)].

오답 해설>

- ① 동시전을 설치하여 시장을 감독한 국가는 신라이다(509, 지증왕 10).
- ③ 감자, 고구마 등이 구황 작물로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④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⑤ 계해약조를 맺어 일본과의 무역을 규정한 것은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쓰시마 도주와 맺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한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

13 - 강조의 정변

1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손녕이 봉산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회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침공을 중지하였다.

(나)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

- ①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 ②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③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켰다.
- ④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 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다.

정답> ③

(가)에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손녕이 봉산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회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니 침공을 중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거란의 제1차 침입이 있었던 고려 성종 12년(993)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나)에는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을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 왕가도에게 명령하여 축조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강감찬(948~1031)의 건의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여 개경 방어를 강화한 것은 고려 현종 대의 일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재위 997~1009, 제7대)을 폐위시킨 것은 1009년의 일이다(강조의 정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발미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은 고려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 ②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 ④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은 진포 대첩[해전]이다(1380, 우왕 6).
- 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공주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망소이의 난).

14 - 원 간섭기 이후의 사실

14.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이분희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못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常例)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한 것이다.

- 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②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 ③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 ④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정답> ③

'왕이 이분희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못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常例)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은 입조(入朝)하였을 때에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분희(?~ 1278), '변발', '왕은 입조하였을 때에 이미 변발하였지만'에서 주어진 자료는 원 간섭기 초기인 충렬왕 대(재위 1274~1308, 제25대) 초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충렬왕 즉위년인 1274년 10월, 충렬왕이 몽골에서 오는 제국대장 공주를 맞이하기 위해 서북면까지 직접 갈 때 있었던 일이다.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한 것은 공민왕 5년인 1356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 ②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한 것은 고려 인종(재위 1122~1146, 제17대) 초기이다(1122~1126).
- ④ 최충(984~1068)이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한 것은 고려 문종 9년인 1055년의 일이다.
- 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집권자인 최충헌에 의해) 설치된 것은 고려 희종 5년인 1209년의 일이다.

15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5.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하였다.
- ② 초조 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 ③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④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③

맨왼쪽 말풍선에 '서경 천도와 금국 정벌을 주장하며 일어났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가운데 말풍선에는 '연호를 천개로 하는 대위국이 선포되었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으로 평가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대화에 나타난 사건은 묘청(?~1135)의 서경 천도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135, 고려 인종 13).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다른 말로 묘청의 난은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하게 된 사건은 거란의 제2차 침입 시의 일이다(1011, 현종 2).
- ② 초조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된 사건은 거란의 침입 때문이다 [1011(현종 2)~1087(선종 4)].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1232, 고종 19).
- ④ 이성계(1335~1408)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위화도 회군이다(1388, 우왕 14).
- ⑤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이 편성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16 - 제왕운기

16.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한국사 과제 안내문

다음에 제시된 역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역사서	소 개
사략	(가)
삼국사기	(나)
삼국유사	(다)
제왕운기	(라)
해동고승전	(마)

◆ 조사 방법: 문헌 조사, 인터넷 검색 등
 ◆ 제출 기간: 2021년 ○○월 ○○일~○○월 ○○일
 ◆ 분량: A4 용지 1장 이상

- ① (가) -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
- ② (나) -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 ③ (다) -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
- ④ (라) -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
- ⑤ (마) -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

정답> ④

'한국사 과제 안내문'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에 제시된 역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역사서로 '사략',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서를 서사시로 서술한 역사서는 제왕운기이다(1287, 충렬왕 13).

오답 해설>

-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한 역사서는 삼국유사이다(1285, 고려 충렬왕 11).
- ②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한 역사서는 조선왕조실록이다.
- ③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한 역사서는 삼국사기이다(1145, 인종 23).
- ⑤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서는 본조편년강목이다(1316, 충숙왕 4). 고려 후기의 문신 민지(1248~1326)의 저술로, 줄여서 '편년강목'이라고도 한다. 해동고승전은 왕명에 의해 각훈(?~?)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한 역사서이다(1215, 고종 2).

17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

1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 거대한 느낌을 주며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희 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불상〉

(가)

- 종목: 보물
- 소재: 경기도 파주시



정답> ①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하여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눈, 코, 입 등을 크게 만들어 거대한 느낌을 주며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불상 측면에는 세조의 비 정희 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물(제93호)이고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 바 이를 통해 (가)는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 입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왼쪽의 마애불은 등근 갓을 쓰고 왼손을 어깨높이로,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연꽃 줄기를 붙잡고 있다(미륵으로 추정). 오른쪽의 마애불에서는 네모난 갓을 쓰고 합장하고 있다. 옷자락의 흐름이 바위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경주 팔공산의 관봉 석조여래 좌상이다. 통일 신라의 불상으로, 머리 위에 갓 모양의 모자가 얹혀 있어 이른바 '갓바위 불상'이라고도 불린다.
- ③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으로, 고려 초기의 불상이다(11세기경 제작 추정). 불두(佛頭)를 따라 제작하여 불신(佛身)이 새겨진 암벽 위에 얹는 형식은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한 형식이다.
- ④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기록을 통해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아 2018년에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 ⑤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 입상이다. 고려 시대의 불상으로, 보물 제96호이다. 모두 5매의 돌을 이용하여 불상을 조성하고 1매의 얇은 돌로써 갓을 삼았다. 등근 얼굴에 활 모양의 눈썹, 긴 행인형의 눈, 넓적한 코, 두터운 입술 등은 고려 초기 거불의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18 - 조선 세종 대의 사실

18. 밑줄 그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되었다.
- ②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되었다.
- ③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 ④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되었다.
- 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간행되었다.

정답> ③

'공법, 6개 고을 시범 시행'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택하셨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전품을 6등급으로,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수취하는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찍이 왕께서는 법안을 논의할 때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라 명하셨고, 전제상정소에서 이를 참조하여 마련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공법(貢法)을 윤택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밑줄 그은 '왕'은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재위 1418-1450)임을 알 수 있다(1444, 세종 26).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이 완성된 것은 성종 24년인 1493년의 일이다.
- ②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가 시행된 것은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 ④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제정된 것은 세조 12년인 1466년의 일이다.
- 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의서를 망라한 동의보감이 (내의원에서) 간행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참고로 허준(1539~1615)이 동의보감 집필을 끝낸 것이 1610년이다.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9 - 조선 중종의 정책

19.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조선 시대 왕대별 보기		
재위 시기	내 용	원문 이미지
5년 4월	제포·부산포·염포에서 왜인이 난동을 일으키다	원문 이미지
13년 9월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라 소격서 혁파를 전교하다	원문 이미지
14년 10월	대사헌 등이 정국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 아뢰다	원문 이미지

- ①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하였다.
- ②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하였다.
- ③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 ④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였다.
- 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하였다.

정답> ⑤

재위 5년(1510) 4월에 '제포·부산포·염포에서 왜인이 난동을 일으키다'가 제시되어 있다(삼포왜란). 이어 재위 13년(1518) 9월에는 '정광필 등의 건의에 따라 소격서 혁파를 전교하다'가, 재위 14년(1519) 10월에는 '대사헌 등이 정국공신의 훈적 삭제에 대해 아뢰다'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왕은 조선의 제 11대 왕인 중종(재위 1506-1544)임을 알 수 있다.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현량과를 실시한 것은 중종 14년인 151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총 부대를 나선 정벌에 파견한 왕은 효종(재위 1649-1659, 제17대이다[두 차례, 각 1654(변급 통솔)/1658(신류 통솔)]).
- ②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한 왕은 세종(재위 1418-1450, 제4대)이다[4군(1433, 세종 15)/6진(1434, 세종 16)]. 4군은 최윤덕(1376~1445), 6진은 김종서(1383~1453)에 의해 개척하였는데,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 ③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이 폐지된 것은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
- ④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20 - 기축옥사

20.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진안 죽도에 숨어 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 ①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 ②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 ③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 ④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정답> ②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1546~1589)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진안 죽도에 숨어 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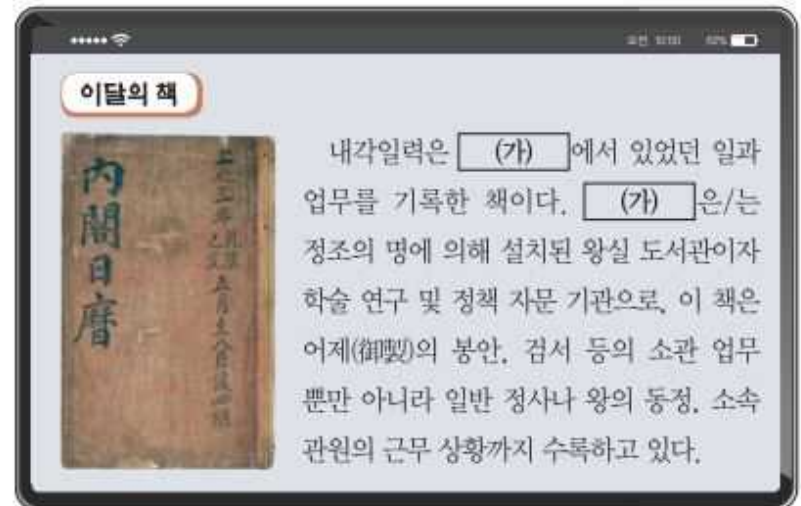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오답 해설>

- ①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킨 것은 조선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 ③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은 것은 명종 2년인 1547년의 일이다.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운) 세력이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 붙여진 벽서를 빌미로 을사사화(1545) 이후 잔존한 반대파 인물들(대운 세력과 사림계)을 재차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라고도 한다. 후일 소운 일파 몰락 후 벽서 사건 자체가 무고임이 공인되었다.
- ④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단종 원년인 1453년의 일이다(계유정난).
- ⑤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것은 선조 8년인 1575년의 일이다.

21 - 규장각(초계문신제 주관)

21.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 ②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리었다.
- ③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④ 대사성을 중심으로 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 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주관하였다.

정답> ⑤

'내각일력은 (가)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은/는 정조의 명에 의해 설치된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 및 정책 자문 기관으로, 이 책은 어제(御製)의 봉안, 검서 등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정사나 왕의 동정, 소속 관원의 근무 상황까지 수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는 규장각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문신제를 주관하였다(1781, 정조 5).

오답 해설>

- ①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화된 기구는 비변사이다(1555, 명종 10).
- ② 은대(銀臺), 후원(喉院)이라고도 불린 기구는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 기관인 승정원이다.
- ③ 5품 이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한 기구는 사헌부와 사간원이다.
- ④ 대사성을 중심으로 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둔 기구는 성균관이다.

22 - 훈련도감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 ②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 ③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 ④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⑤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오늘은 5군영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가)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훈국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훈국등록에는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인 (가) 소속 군인들의 궁궐과 도성 수비, 국왕 호위, 훈련 상황 등 업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말풍선 속 '(가)'는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에 설치된 훈련도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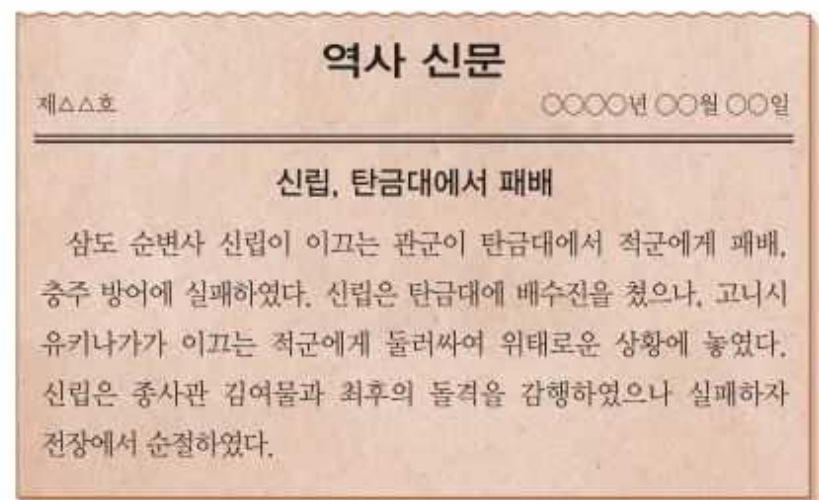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둔 것은 조선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당시 장용영은 도성 안에 본영을,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 ②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한 군대는 응양군이다(고려의 중앙군인 2군).
- ③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된 군대는 어영청이다(1624, 인조 2).
- ⑤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다(1881, 고종 18).

23 - 충주 탄금대 전투 이후의 사실

23.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하였다.
-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③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④ 송상현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하였다.
- 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정답> ④

'신립, 탄금대에서 패배'라는 제목 아래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관군이 탄금대에서 적군에게 패배, 충주 방어에 실패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신립은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으나, 고니시 유키나가 이끄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신립은 종사관 김여물과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실패하자 전장에서 순절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임진왜란 초기 신립(1546~1592)이 충북 충주 탄금대에서 패배한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592.4.26-28).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이 동래성 전투에서 항전한 것은 1592년(선조 25) 4월 15일의 일이다(같은 해 4월 13일 임진왜란 발생).

오답 해설>

- ① 김시민(1554~1592)이 진주성에서 항쟁한 것은 1592년 10월 6일의 일(~10일)이다(제1차 진주성 전투). 참고로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이듬해인 1593년 6월에 있었다.
- ②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은 1593년(선조 26) 1월 6일의 일이다.
- ③ 이순신(1545~1598)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쳐 승리한 것은 1592년 7월 8일의 일이다(한산도 대첩).
- ⑤ 권율(1537~1599)이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한 것은 1593년 2월 12일의 일이다(행주 대첩).

24 - 조선 영조(탕평비 건립)

24.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의입니다. 그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②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하였다.
- ④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 ⑤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을 거행하고 그 기쁨을 표현한 경잠기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는 등 민생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왕'은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6)임을 알 수 있다.

영조는 재위 18년인 1742년에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오답 해설>

-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은 성종(재위 1469-1494, 제9대)이다(1485, 성종 16).
-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을 실시한 왕은 정조(재위 1776-1800, 제22대)이다(1791, 정조 15).
- ④ 전세를 1결당 4~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제정한 왕은 인조(재위 1623-1649, 제16대)이다(1635, 인조 13).
- ⑤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한 왕은 순조(재위 1800-1834, 제23대)이다(1801, 순조 원년).

25 - 추사 김정희

2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라고 잘못 불러 왔다. …… 탁본을 한 결과 비의 형태는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의 진(眞) 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정하고 보니, 1200년 전의 고적(古蹟)임이 밝혀져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깨지게 되었다.

- 「완당집」 -

- ① 담헌서를 통해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②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 ③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 ④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하였다.
- ⑤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數論)을 전개한 구수략을 저술하였다.

정답> ②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 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라고 잘못 불러 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탁본을 한 결과 비의 형태는 황초령비와 서로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의 진(眞) 자는 약간 마멸되었으나 여러 차례 탁본을 해서 보니, 진(眞) 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침내 진흥왕의 고비(古碑)로 정하고 보니, 1200년 전의 고적(古蹟)임이 밝혀져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깨지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비 중의 하나로 고증한 사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1852, 철종 3). 출처인 완당집(阮堂集) 역시 김정희의 시문집이다['완당'이 김정희의 여러 호(號) 중의 하나].

김정희는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담헌서를 통해 과거제 폐지를 주장한 인물은 담헌 홍대용(1731~1783)이다.
- ③ 북학의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한 인물은 조정 박제가(1750~1805)이다(1778, 정조 2).
- ④ 연려실기술에서 조선의 역사를 기사 본말체로 서술한 인물은 완산 이금익(1736~1806)이다(1776, 영조 52). 백과사전식으로 구성된 기사 본말체 사서이자 일종의 정치 야사집이다.
- ⑤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數論)을 전개한 구수략(九數略)을 저술한 인물은 명곡 최석정(1646~1715)이다(1700, 숙종 26). 최석정은 영의정까지 역임한 문신으로, 구수략은 말 그대로 수학책이다.

26 -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

26.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 기>—
- ㄱ.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 ㄴ.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 ㄷ.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등 사절단을 보내었다.
 - ㄹ. 어윤중을 서북 경력사로 임명하여 사무를 관장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①

'그림으로 보는 조선사'라는 제목 아래 '이것은 기유약조로 교역이 재개된 (가)와/과의 무역 중심지인 초량 일대를 그린 그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림 아래 부분의 동관 지역은 (가) 상인들과 관리들의 집단 거주지였으며, 거류민 관리와 조선과의 교섭 등을 담당하던 관수의 관사(官舍)도 위치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일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초량 왜관이 설치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의 일이다. 동래 상인인 내상이 왜관 개시를 통해 대일 무역에 종사하였다.

ㄱ. 조선은 일본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는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 이루어졌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서 통신사 일행이 방문한 곳마다 정치가나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 묵객, 서민들까지 통신사들에게서 서화, 시문, 글씨 등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를 병풍, 회관(두루마리 그림), 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한편,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ㄴ.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한 국가 역시 일본이다. 태종 7년인 1407년에 동평관이 처음 설치된 것으로 추정한다.

오답 해설>

ㄷ. 하정사, 성절사, 동지사 등 사절단을 보낸 대상 국가는 중국의 명(明)과 청(淸)이다. 여기서 하정사(賀正使)는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신년 축하)하러 가던 사신으로 정조사(正朝使)라고도 한다. 동지와 정월이 가까이 있으므로 동지사(冬至使)가 하정사(정조사)를 겸하였다. 또 성절사(聖節使)는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이다. 참고로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절로 천추사(天秋使)도 있다.

27 - 보은 법주사 팔상전

27.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①

'국보'이자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또 '정유재란[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인조 때 중건되었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시대 목탑'이라는 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국보 제55호인 보은 법주사 팔상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법주사 안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이 있다.

오답 해설>

②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17세기의 건축물이다.

③ 김제 금산사 미륵전도 17세기의 건축물이다.

④ 부여 무량사 극락전은 17~18세기의 건축물이다.

⑤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인 17세기의 건축물이다.

26번

오답 해설>

ㄹ. 어윤중(1848~1896)을 서북 경력사로 임명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한 대상 국가는 중국의 청이다(1882, 고종 19).

28 - 홍경래의 난

28.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③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 ④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되었다.
- ⑤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정답> ③

왼쪽 대화에서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여 주소서'라는 말이 나와 있다. 순조 원년인 180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대화에서 '동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두목인 최제우를 효수하여 본보기로 삼으소서'라는 말이 나와 있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1824~1864)를 흑세무민의 죄를 물어 처형한 것은 고종 원년인 1864년의 일이다.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한 것은 순조 11년인 1811년의 일이다(홍경래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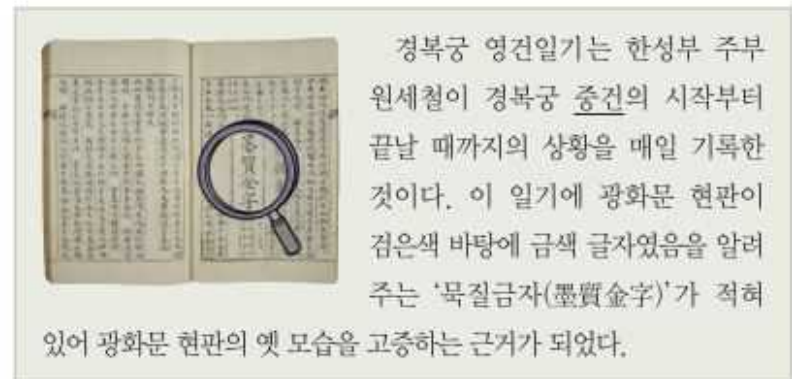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왕[인조]이 도성을 떠나 (충남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란한 것은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이괄의 난).
- ② 오페르트(1832~1903)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 ④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개최된 것은 고종 29년인 1892년 11월의 일이다.
- ⑤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킨 것은 영조 4년인 1728년의 일이다.

29 - 경복궁 중건

29. 밑줄 그은 '중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 ㄱ. 비변사가 설치되었다.
- ㄴ. 사창제가 실시되었다.
- ㄷ. 원납전이 징수되었다.
- ㄹ.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③

'경복궁 영건일기는 한성부 주부 원세철이 경복궁 중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매일 기록한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일기에 광화문 현판이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였음을 알려주는 '묵질금자(墨質金字)'가 적혀 있어 광화문 현판의 옛 모습을 고증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경복궁을 중건한 시기는 고종 2년인 1865년에서 고종 5년인 1868년까지이다.

ㄴ. 사창제가 실시된 것은 고종 4년인 1867년의 일이다.

ㄷ. 원납전이 징수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ㄱ. 비변사가 (처음 임시 군무 협의 기구로) 설치된 것은 3포 왜란이 일어난 중종 5년(1510)의 일이다. 참고로 고종 2년인 1865년에 비변사가 폐지되었다.

ㄹ.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30 - 병인양요

30. 밑줄 그은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해군 제독 로즈 귀하
당신이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합니다.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휘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조선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7월 13일 베이징에서
벨로네

- ①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②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하였다.
- ③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흥선 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해군 제독 로즈 귀하'라는 수신자 아래 '당신이 지휘하는 해군 병력에 주저없이 호소합니다.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을 희생시킨 사건이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대한 확실한 복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휘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조선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발신자 벨로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은 고종 3년인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를 가리키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병인양요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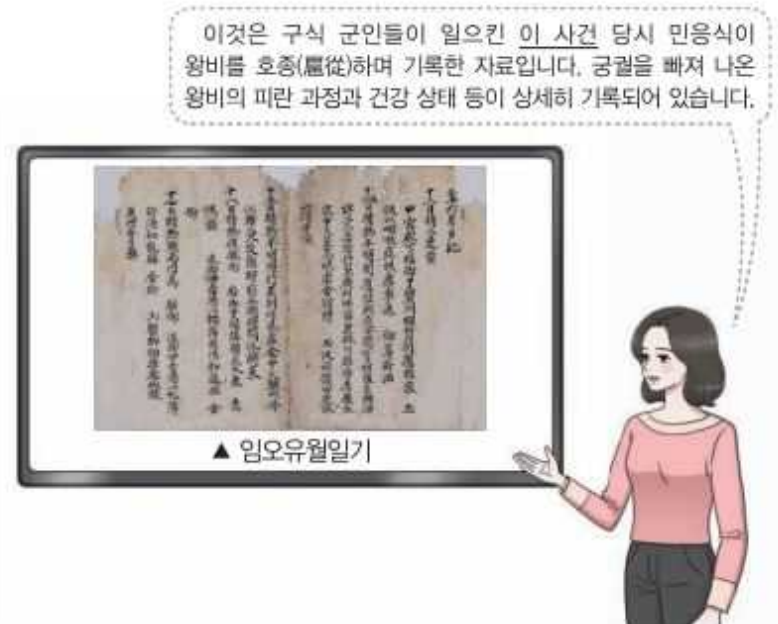
병인양요 당시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하였다(한성군은 문수산성에서 싸워 이김).

오답 해설>

- ①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6년 9월의 일이다.
- ③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6).
- ④ 사태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사건은 진주[임술] 농민 봉기이다(1862, 철종 13).
- ⑤ 흥선 대원군이 텐진으로 압송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임오군란이다.

31 - 임오군란

31.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
- ②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
- ④ 흥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 ⑤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⑤

'이것은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이 사건 당시 민응식(1844~?)이 왕비를 호종(扈從)*하며 기록한 자료(임오유월일기)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궁궐을 빠져 나온 왕비의 피란 과정과 건강 상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사건'은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에 일어난 임오군란임을 알 수 있다.

*호종: 임금의 행차 때에 어가(御駕) 주위에서 임금을 모시는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

임오군란 결과 조선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되고, 여기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상주]하는 항목을 규정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전개 과정에서 전주 화약이 체결된 사건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1894.5.8).
- ②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의 일이다.
- ③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이다(1884.12).
- ④ 흥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이다(1895.1).

32 - 거문도 사건

32. 다음 가상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1871	1876	1884	1895	1904	1909
	(가)	(나)	(다)	(라)	(마)
신미 양요	조일 수호 조규	갑신 정변	삼국 간섭	한일 의정서	기유 각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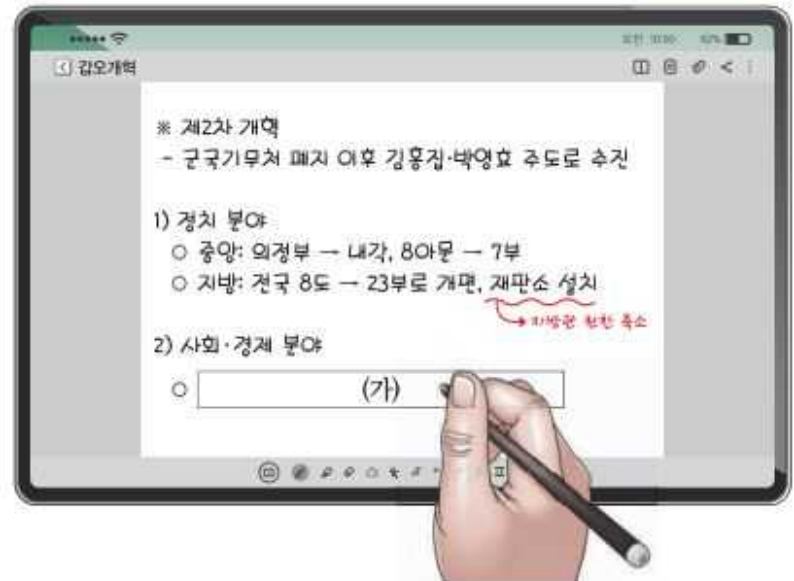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나으리, 지난달부터 영국군이 이 섬에 들어와 병영을 짓고 머무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다는 구실로 조정의 허락도 없이 점령했다고 들었네'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은 영국이 고종 22년인 1885년 4월 (양력)에 거문도를 무단으로 점령한 사건(거문도 사건)임을 알 수 있다(~1887.2).

연표에서는 (다) 시기에 해당한다.

33 - 제2차 갑오개혁

3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지계 발급
- ② 태양력 사용
- ③ 한성순보 발행
- ④ 공사 노비법 폐지
- ⑤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정답> ⑤

'(갑오개혁) 제2차 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 김홍집·박영효 주도로 추진'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1) 정치 분야로 중앙의 의정부가 내각으로, 8아문이 7부로 개편된 사실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제2차 갑오개혁임을 알 수 있는 바(1894.12~1895.8) 사회·경제 분야의 개편으로는, (제시된 선지 중에서는,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들 수 있다(1895.2).

오답 해설>

- ① 지계가 발급된 것은 광무개혁 때의 일이다(1899~1904).
- ② 태양력이 사용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8~1896.2).
- ③ 한성순보가 발행된 것은 1883년(고종 20) 10월의 일이다(박문국 설치).
- ④ 공사 노비법이 폐지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7~12).

34 - 대한 제국 시기의 모습

34.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간도 관리사로 임명되는 관료
- ②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청년
- ③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 ④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는 평양 관민
- ⑤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파견되는 통역관

정답> ①

'환수된 황제지보 특별 전시전'이라는 제목 아래 초대 글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가) 시기에 사용 하였던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를 공개합니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지난 2014년 문화재청과 미국 당국의 공조로 60여 년 만에 환수된 것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 제국이 자주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된 것은 고종 34년인 1897년 10월의 일이다(1897.10.12.). 대한 제국은 이때부터 일제에 의해 병탄되는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속하였다.

간도 관리사가 파견된 것은 1903년(고종 40)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02년 6월 이범윤(1856~1940)을 간도 시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파견하였다가 이듬해인 1903년 7월에 (북변)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발성)영화 아리랑이 나운규(1902~1937) 감독에 의해 만들어져 상영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
- ③ 육영 공원이 만들어진 것은 1886년(고종 23) 9월의 일이다.
- ④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관민들에 의해 불태워진 것은 1866년(고종 3) 7월의 일이다.
- ⑤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파견된 것은 1881년(고종 18) 4월의 일이다(~윤7).

35 - 항일 의병 운동

35.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③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을사의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5~1906).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들의 주도하에 일어났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을미의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5~1896). 마지막으로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정미의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1908).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나)-(가)-(다)'가 된다.

36 - 대한매일신보

36.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가)을/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한 베델의 묘입니다. 그는 "나는 죽지만, (가)은/는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①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 ②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 ④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정답> ④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가)을/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한 베델의 묘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는, 나는 죽지만 (가)은/는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말풍선 속 '(가)'는 1904년 7월에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임을 알 수 있다(~1910.8). 대한매일신보는 (황성신문, 제국신문과 함께)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1907.2~1908.7).

오답 해설>

- ①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은 신문은 한성주보이다(1886).
- ②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된 신문은 만세보이다(1906.6).
- ③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신문이다(1896.4).
- ⑤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한 신문은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이다. 손기정 선수(1912~2002)가 1938년 8월 9일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하였을 때 두 신문사가 이를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이 발생하였다.

37 - 을사늑약 이후의 사실

37.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 포고한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전하겠다는 말을 폐하께서는 과연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역지로 만든 헛된 조약에 불과합니다.

- ①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되었다.
- ② 일본이 경인선 부설권을 인수하였다.
- ③ 뮐렌도르프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 ④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이 부임하였다.
- ⑤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정답> ④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 포고한 이후 우리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였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빼앗아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황실을 보전하겠다는 말을 폐하는 과연 믿으십니까?'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지금까지 군주의 지위가 아직 바뀌지 않았고 백성도 아직 죽지 않았으며 각국 공사도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서가 다행히 폐하의 인준과 참정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적들이 역지로 만든 헛된 조약에 불과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05년 11월 17일 제2차 한일 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이 강요되자 전현직 관리 및 재야에서는 일제히 이에 반대하는 상소 운동이 벌어졌는데, 주어진 자료 속 상소문은 전 의정부대신 조병세(1827~1905)가 올린 것이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가 부임한 것은 1906년 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제1차 영일 동맹이 체결된 것은 1902년 1월의 일이다.
- ② 일본(경인철도합자회사)이 경인선 부설권을 [미국으로부터, 정확하게는 미국인 모스(J.R.Morse)에게서] 인수한 것은 1898년(광무 2) 5월의 일이다.
- ③ (독일인) 뮐렌도르프(1848~1901)가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것은 1882년(고종 19) 12월의 일이다.
- ⑤ 러시아가 용암포를 점령한 것은 1903년 4월이고, 조차를 요구한 것은 같은 해 7월의 일이다.

38 - 백암 박은식

38.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역사 인물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1859~1925)

국혼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찍부터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우학회에서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쳤으며,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①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하였다.
- ②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③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 ④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 ⑤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하였다.

정답> ⑤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국혼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한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일찍부터 민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우학회에서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쳤으며,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1925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자료에서 제시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임을 알 수 있다.

박은식은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저술한 바 있다(1909.3, 서북학회월보에 게재, 유교의 개량과 혁신 주장).

오답 해설>

- ① 진단 학회를 창립하고 진단 학보를 발행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두계 이병도(1896~1989)를 들 수 있다. 이 외 한외 이윤재(1888~1943), 일석 이희승(1896~1989), 남창 손진태(1900~?), 도남 조윤제(1904~1976) 등이 진단 학회의 실무를 맡아 보았다(1934.5).
- ② 여유당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위당 정인보(1893~1950)와 민세 안재홍(1891~1965)을 들 수 있다(1934~1938).
- ③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보재 이상설(1870~1917), 이준(1859~1907), 이위종(1887~?) 3인이다.
- ④ 평양에서 조선 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대표적인 인물은 고당 조만식(1883~1950)이다(1920.8).

39 - 무단 통치기의 사실(조선 태형령)

39. (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가) •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부를 통할하도록 한다.
-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하도록 한다.

(나)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여 …… 정치·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

- ① 미곡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 ②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 ③ 국민 징용령이 제정되었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정답> ②

(가)에 '조선에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위임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일체의 정부를 통할하도록 한다', '통감부 및 그 소속 관서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조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총독부 및 소속 관서의 관제가 공포된 것은 1910년 9월 30일의 일이다(칙령 제354호). 그 기능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나)에는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며, 또한 일반 관리나 교원 등의 복제를 폐지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에 관해 더욱 고려하여 …… 정치·사회상의 대우에서도 내지인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바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제3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해온 사이토 마코토(통치 1919.8~1927.12)이 밝힌 '시정 방침'이다(1919.9).

조선 태형령이 시행된 것은 1912년 4월의 일이다(~1920.3). 즉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미곡) 강제 공출이 시행된 것은 1944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미곡 공출제가 실시된 것은 1940년부터이다. 1939년 말에 조선미곡통제령,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을 공포하여 조선 쌀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출 및 배급 제도를 실시하였다. 1941년 미곡년도부터는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 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공출제가 본격화되었다.
- ③ 1939년 7월에 제정된 일제의 국민 징용령이 조선에도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의 일이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된 것은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40 - 의열단

40.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6

〈영화 제작 기획안〉

청년 김상옥

■ 기획 의도

김상옥의 주요 활동을 영화로 제작하여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

■ 대본 개요

1. 혁신공보를 발행하며 계몽 운동에 힘쓰다.
2. 김원봉이 조직한 [가]의 일원이 되다.
3.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
4. 일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 ②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이다.
- ④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하였다.
- ⑤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

정답> ①

'청년 김상옥'이라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김상옥의 주요 활동을 영화로 제작하여 독립운동가의 치열했던 삶과 항일 투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본 개요로 '1. 혁신공보를 발행하여 계몽 운동에 힘쓰다'와 '2. 김원봉이 조직한 (가)의 일원이 되다'가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3.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다'와 '일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나와 있다. (의열단원) 김상옥(1890~1923)이 1923년 1월에 벌인 일로, 이를 통해 자료 속 '(가)'는 의열단임을 알 수 있다.

의열단은 단재 신채호(1880~1936)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을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1923.1).

오답 해설>

- ②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7).
- ③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 단체는 (대한)독립 의군부이다(1912.9).
- ④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한인 애국단이다(1932.1).
- ⑤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무장 투쟁을 준비한 단체는 서간도(남만주)의 경학사(이후 부민단)이다(1919.5).

41 -광주 학생 항일 운동

41.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 우표는 이 운동의 기념탑과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함께 형상화하여 도안되었다. 학생의 날은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 ④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정답> ⑤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표는 이 운동의 기념탑과 당시 학생들의 울분을 함께 형상화하여 도안되었다. 학생의 날은 2006년부터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이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임을 알 수 있다(1929.11.3).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 중앙 본부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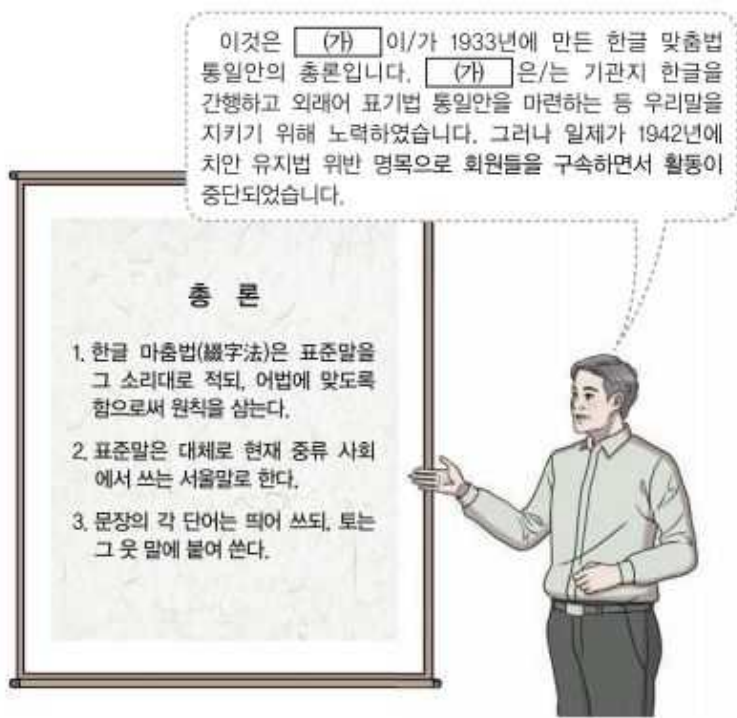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형평 운동이다(1923.4).
- ②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운동은 3·1 운동이다(1919.3).
- ④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42 - 조선어 학회

42.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 ②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 ③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 ④ 우리말 음운 연구서인 언문지를 저술하였다.
- ⑤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되었다.

정답> ①

'이것은 (가)이/가 1933년에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입니다. (가)은/는 기관지 한글을 간행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일제가 1942년에 치안 유지법 위반 명목으로 회원들을 구속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말풍선 속 '(가)'는 조선어 학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931년 11월 조선어 연구회에서 명칭 변경).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다. 조선어 학회는 1929년부터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는데 1942년 10월 일제에 의해 조작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편찬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이후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 2권이 한글 학회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간행되었으며, 3권부터는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이 간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②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이 간행된 것은 1898년 8월의 일이다 (~1910.8).
- ③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가 도입된 것은 영국의 선교사 존 로스 (John Ross, 1842~1915)가 쓴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다(1877, 고종 14). 이후 1896년 4월에 간행된 독립신문이 서재필(1864~1951), 주시경(1876~1914),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1863~1949) 등의 노력으로 간행물로는 최초로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1933년 조선어 학회가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면서 한글 띄어쓰기가 더욱 보편화되었다.
- ④ 우리말 음운 연구서인 언문지가 [유희(1773~1837)에 의해] 저술된 것은 1824년(순조 24)의 일이다.
- ⑤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 아래에 설립된 것은 국문 연구소이다 (1907.7).

43 - 산미 증식 계획

4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내지(內地)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하였다. ……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반면 조선은 관개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하는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
-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 ① 산미 증식 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 ②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를 분석한다.
- ③ 보안회의 경제적 구국 운동을 조사한다.
- ④ 방곡령이 선포된 지역의 분포를 알아본다.
- 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을 살펴본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내지(內地)는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하였다. ……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반면 조선은 관개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하는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 사업을 시작한다면 천혜의 쌀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는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할 때, 결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하여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0년 11월에 계획된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934).

오답 해설>

- ②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05년 7월의 일이다 (~1909.12).
- ③ 보안회의 경제적 구국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 ④ 방곡령이 선포된 지역은 황해도(1889, 1890)와 함경도(1889)이다. 방곡령 시행 여부는 1883년 7월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일 통상 장정에서 규정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 각 지역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 1876년부터 1905년경까지 백여 차례 정도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 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44 - 대중교

44.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공의 이름은 인영(寅永)인데, 뒤에 철(喆)로 고쳤다. …… 보호 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오적(五賊)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계획이 새어 나가 일을 그르쳤다. 뒤에 (가) 을/를 제창하고 교주를 자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진흥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 …… 그의 문인(門人)들은 그를 숭상하여 오백 년 이래 다시 없는 대중사로 여겼다.

-『유방집』-

- ①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다.
- ②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③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 ⑤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답> ③

'공의 이름은 인영(寅永)인데 뒤에 철(喆)로 고쳤다. …… 보호 조약이 체결된 뒤에 동지와 함께 오적(五賊)의 처단을 모의하였는데, 1907년에 계획이 새어 나가 일을 그르쳤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뒤에 (가)을/를 제창하고 교주를 자임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진흥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북간도에 가서 그의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하였다. …… 그의 문인(門人)들은 그를 숭상하여 오백 년 이래 다시 없는 대중사로 여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말하는 공의 이름은 (홍암) 나철(1863~1916)이고, (가)는 대중교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909).

*출처인 『유방집』은 조소앙(1887~1957)이 1933년에 중국 난징에서 펴낸 독립운동가 82인의 평전이다. 책 이름인 유방은 '꽃다운 이름이 후세에 길이 전한다'는 뜻인 유방백세(流芳百世)에서 따왔다.

대중교는 중광단을 결성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1911.3). 중광단은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사찰령 폐지 운동을 추진한 종교는 불교이다(1911.6).
- ②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종교는 천도교이다(1920년 개벽사 설립, 개벽은 1920년 6월, 신여성은 1923년 9월에 발행).
- ④ 배재 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한 종교는 개신교이다 (1885. 8) 배재 학당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 (1858~1902)에 의해 세워졌다.
- ⑤ 박종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추진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전반).

45 -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45.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국 독립군이 쌍성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②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 ③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⑤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정답> 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창설된 한인 경위대의 사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부대는 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가 조직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인가를 받아 미주 한인들의 대일 전선 동참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인 경위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직된 것은 1942년 2월의 일이다(한민국방경위대, 맹호군이라고도 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1941년 12월 10일의 일이다.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만든 것은 1941년 2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한국 독립군이 쌍성포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1932년 9월과 11월의 일이다.
- ②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
- ③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23년 1월의 일이다(~6). 74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창조파와 개조파가 극렬히 대립하다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④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26년 11월의 일이다.

46 - 5·10 총선거

46. (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단독 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

(나)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 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은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동월 20일 8시 여수를 점령하는 한편, 좌익 단체 및 학생들을 인민군으로 편성하여 동일 8시 순천을 점령하였다.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다.
- ②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③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었다.
-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 ⑤

(가) '우리는 다음 달에 입국할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환영하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자주 독립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단독 정부는 절대 반대할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제2차)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백범 김구(1876~1949)가 같은 해 12월 22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나) '올해 10월 19일 제주도 사건 진압 차 출동하려던 여수 제14연대 소속 3명의 장교 및 40여 명의 하사관들은 각 대대장의 결사적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로당 계열 분자 지도하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동월 20일 8시 여수를 점령하는 한편, 좌익 단체 및 학생들을 인민군으로 편성하여 동일 8시 순천을 점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 10·19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된 12월 8일에 열린 국회 제124차 회의에서 기록된 속기록의 내용이다('호남사건'의 경과에서 설명한 개요와 원인 중 개요에 해당).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제1회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것은 1946년 5월 9일의 일이다(1946.3.20~5.9).
- ②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16일의 일이다(~12.28).
- ③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된 것은 1946년 10월 7일의 일이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시행된 것은 1950년 3월 10일의 일이다(제정은 1949년 6월 21일).

47 - 9·28 서울 수복 이후의 사실

47.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 10여 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 뒷면에는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었으며, 앞으로 힘을 합쳐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 볼까요?



<보 기>

- ㄱ. 애치슨 선언이 발표됐어요.
- 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됐어요.
- ㄷ.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회담이 개최됐어요.
- ㄹ.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했어요.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 10여 일 만에 서울을 수복한 사실을 알리는 전단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뒷면에는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적의 보급선을 끊었으며, 앞으로 힘을 합쳐 공산군을 끝까지 몰아내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말해 볼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한 것은 1950년 9월 28일의 일이다(인천 상륙 작전은 1950년 9월 15일).

ㄴ.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에 의해) 흥남 철수 작전이 전개된 것은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3일까지의 일이다.

ㄷ.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 회담이 (개성에서 처음) 개최된 것은 1951년 7월 10일의 일이다. 이후 이듬해인 1952년 7월에 개성에서 다시 본회담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이 중지되었다.

오답 해설>

ㄱ. 애치슨 선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 애치슨 선언이란, 1950년 1월 10일 당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1893~1971)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래스카-일본-오키나와-필리핀 선으로 한다고 언명한 것을 말한다.

ㄹ. 국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방어한 것은 1950년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한 국군 제1사단(학도병 500여 명도 포함)이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2군단(3개 사단 규모)의 공세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특히 이 전투에서 제1사단 12연대는 특공대를 편성, 적 전차 4대를 파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국군은 대구를 일정 기간 고수할 수 있었다.

48 -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사실

48. 밑줄 그은 '선거'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 ②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③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④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 ⑤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되었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김대중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못하면 박정희 후보가 영구 집권하는 총통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오른쪽 말풍선에는 '장충단 유세에서 박정희 후보는 자신을 한 번 더 뽑아달라는 정치 연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밑줄 그은 '선거'는 1971년 4월 27일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3선 개헌을 통해 출마한 박정희 후보와 당내 경선을 통해 40대 기수론을 제창하며 세대교체 바람을 몰고 온 김대중 후보의 대결로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는데, 선거 결과 634만 2,828표(득표율 53.2%)를 얻은 박정희 후보가 539만 5,900표(득표율 45.2%)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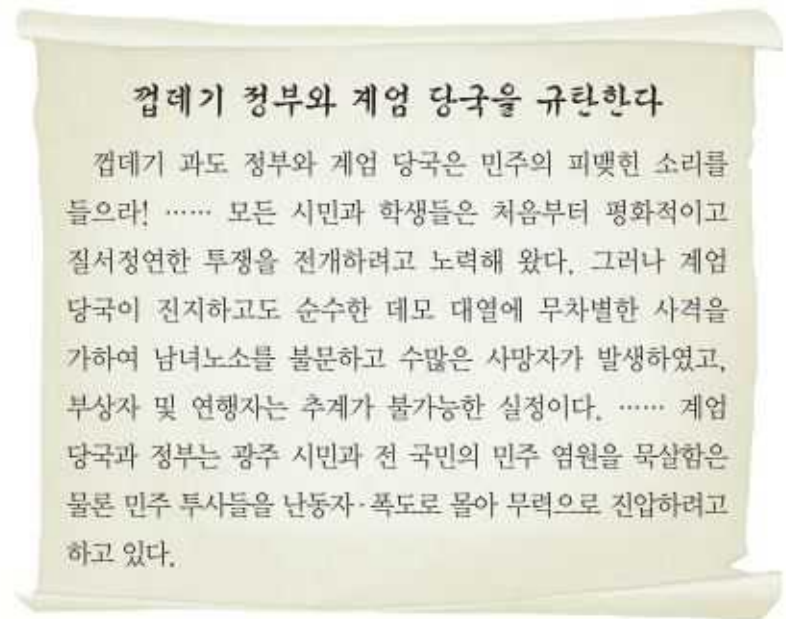
국회 해산과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유신이 선포된 것은 1972년 10월 17일의 일이다(10월 유신).

오답 해설>

- ①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것은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
- ②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처형된 것은 1959년 7월의 일이다.
- ③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69년 9월의 일이다(1969.9.14). 구체적으로 밝히면 9월 14일 일요일 새벽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야당(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찬성 122표, 반대 0표로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그 후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 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 ④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된 것은 1964년의 일이다(1964.6.3).

49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9.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 ②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
- ③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 ④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았다.
- 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다.

정답> ③

'껍데기 정부와 계엄 당국을 규탄한다'는 제목 아래 '껍데기 과도 정부와 계엄 당국은 민주의 피맺힌 소리를 들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처음부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계엄 당국이 진지하고도 순수한 데모 대열에 무차별한 사격을 가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 및 연행자는 추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계엄 당국과 정부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의 민주 염원을 묵살함은 물론 민주 투사들을 난동자·폭도로 몰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80년 5월에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시위 과정에서 (계엄군에 대항하는)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점을 들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던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 ② 야당 총재(김영삼)의 국회 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된 민주화 운동은 1979년 10월의 부마 민주 항쟁이다.
- ④ 경무대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은 것은 1960년 4월의 4·19 혁명이다.
- 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이다.

50 -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50.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전개하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 금융, 기업, 공공, 노사의 4대
개혁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체제를 완비했습니다.

- ① G20 서울 정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②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되었다.
- ③ 금융 실명제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되었다.
- ④ 8·3 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되었다.
- ⑤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다.

정답> 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은 세계가 놀라워하는 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외환 위기를 맞이하자 우리 국민은 '금 모으기'를 전개하
여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금융,
기업, 공공, 노사의 4대 개혁을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지
하고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년을 앞당겨 IMF 관리 체
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틀을 갖추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을 시행한 것을 비롯해 선진국 수준의 복지 체제를 완비했습니
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난 것[채무 조
기 상환]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8월 23일의 일이고, 국
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시행된 것 역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10월의 일이다(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1999년 9월)(김대중 정부 시기, 1998.2~2003.2).

남북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경의선 복원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 9월의 일이다(2000.9.18).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3년 6
월에 경의선 연결식이 군사분계선(MDL)에서 개최되었다
(2003.6.14).

오답 해설>

- ① G20 서울 정상 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의 일이다(2010.11.11~12).
- ②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 참고로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
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
- ③ 금융 실명제가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실시된 것은 김영삼 정
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 ④ 8·3 (긴급금융)조치로 사채 동결 등의 특혜가 기업에게 제공
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8월의 일이다(1972.8.3). 경
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 15호이다.

- 이 상 -